



다시 대한민국!  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배포 : 2025년 3월 7일(금)

## 국가안보실장 방미 결과

### - 미국 新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강화 방안 협의 -

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3/6(목) 오후(현지시간) 워싱턴에서 마이클 월츠(Michael Waltz)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대면 협의를 갖고, 한미동맹, 북한 문제, 한미일 협력,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.

양측은 한반도는 물론, 역내 평화, 안전, 그리고 번영에 있어 한미동맹의 힘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, 이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양측은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하고, 대북 정책 수립·이행 과정에서 공조해 나가기로 했으며, 북한과 러시아 및 중국 간 협력 동향에 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특히, 양측은 포괄적 협력이 수반되는 조선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한미 NSC 차원에서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아울러, 신 실장은 한미 FTA를 적용한 우리의 대미 실행관세를 설명하면서 양측 통상당국 간 생산적 소통과 협의를 당부했습니다.

한편, 신 실장은 이번 방미 계기 로저 위커(Roger Wicker) 상원 군사위원장(공화, 미시시피), 피트 리케츠(Pete Ricketts)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(공화, 네브래스카) 등 美 의회 핵심 인사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美 의회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습니다. <끝>